

익산-완주, 상생발전 위해 맞손

‘익산-완주 2차 상생협약’ 진행, 시민들의 건강·쾌적한 생활 환경 위해 ‘힘 모아’ 봉동 구암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공동건의·익산 완주 악취배출시설 합동점검 추진

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완주군과 힘을 모은다.

지난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을 익산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익산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완주군 상생 발전을 위한 2차 협약’을 진행했다. 지난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반영 공동건의문 서명 이후 두 번째로 맺는 상생협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시군은 ‘봉동을 구암리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공동건의’와 ‘익산·완주 악취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봉동을 구암리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공동건의’를 통해 주민의 건강보장권·재산권·환경권을 침해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결사 반대하고, 전북지방환경청에 불허를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악취배출시설 합동점검’은 양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서 발생하는 지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을 통해 악취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지난 6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완주군 상생 발전을 위한 2차 협약’을 진행했다.

기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2차 상생 협력사업으로 양 시군이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인접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기능적·경제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2차 상생 협력사업에 환경적으로 양 지역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사업이 포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완주=염재복 기자



최근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애호가 공사급참사관 일행이 국립군산대를 방문해 한중 양국 국제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양국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주한중국대사관 공사급참사관 일행, 국립군산대학교 방문

최근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애호가 공사급참사관 일행이 국립군산대를 방문해 한중 양국 국제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애호가 교육공사 및 이해민 3등 서기관 등 방문단 일행은 최연성 총장 직무대리와 본부 주요 보직자를 예방하여 국립군산대의 중국인 유학생 교육 현황을 소개받고, 한중 양국의 교류 활성화 및 유대관계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애호가 공사는 대학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국립군산대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 40여명과 만나 이들을 격려하면서 유학 기간 동안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립군산대 최연성 총장 직무대리는 “애호가 공사의 방문은 한중 양국의 고등교육 교류 및 지역 경제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방문으로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만전’

14~18일, 종합상황실 10개반 운영... 민생 안정 정책·팔봉공설묘지 셔틀버스 운행 등 추진

익산시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위해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생활민원에 즉각 대처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0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및 수급 안정관리를 위한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성수품 가격 동향 모니터링과 불공정 상거래 점검 등을 통

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예정이다.

또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민생경제 특별대책으로 9월 한 달 지역화폐 디아로움 20% 특별할인 정책을 추진해 민생안정에도 힘쓴다.

장보기 행사와 착한가격업소 사업자 재해 대응 종합상황실, 의료·악취·도로·상하수도 대책반 등을 운영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성묘객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팔봉공설묘지는 추석 명절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통 통제로 질서 유지를 나선다.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성묘할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에서 팔봉공설묘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아울러 교통중립대책 상황실과 재난재해 대응 종합상황실, 의료·악취·도로·상하수도 대책반 등을 운영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고향사랑기부 동반자’ 찾으면 선물 팡팡

군산시, ‘고향사랑기부 동반자 찾기 2+1’ 이벤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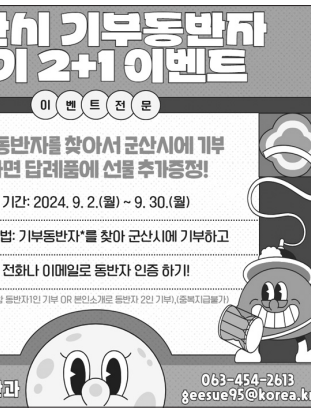
군산시가 9월 한 달 동안 ‘고향사랑기부 동반자 찾기 2+1’ 이벤트를 연다. 또한 11~12일에는 시청에서 ‘기부동반자 찾기 현장’ 홍보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기부동반자를 찾아 군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면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추가 선물이 제공되는 형식으로 참여자 본인과 동반자 1인이 함께 기부·참여자 본인은 기부하지 않더라도 소개로 온 동반자 2인이 모두 기부하면 된다.

군산시는 참여자 독려를 위해 오는 9월 11일부터 12일에는 12시~13시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현장 홍보도 할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누구나 ‘기부동반자 찾기 2+1’ 참여를 약속하면 기념품을 받게 된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이 군산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특히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군산시가 오는 9월부터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을 위한 차세대 전자문서인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온나라 문서 시스템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법정부 업무관리체계이다. 군산시는 ‘온나라 문서 1.0 시스템’을 2014년도에 도입해 10여 년 동안 사용해 왔다.

이번에 전환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은 △웹 표준 기술 적용 △다양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환경에서

사용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는 웹 기반기와 인공지능(AI)이 읽을 수 있는 국제표준 개방형 파일 형식(ODT)을 사용한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마련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성도 강화되어 중요한 행정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농민 공익수당 78억원 추석 전 지급

익산시가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 78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시는 지난 3~5월 신청한 농가 중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1만 3000여 농가에 농가당 60만 원씩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인 디아로움 충전과 기프트 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디아로움 카드 사용 농가는 9일 일괄 충전되며, 디아로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농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9일부터 기프트카드(30만 원권 2매)로 지급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아로움 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로 가맹점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화폐와 달리 농민 공익수당은 정책 수당으로 가맹점 매출액과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민주시민교육 진행 20일까지 신청·접수

군산시는 오는 24일 오후 7시 군산시평생학습관 4층 강당에서 군산시민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교육과정은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또한 이인철 변호사, 표창원 교수, 박찬우 소장, 강원국 교수 등 총 6명의 유명 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법률·생활·범죄예방·기후환경·생명 존중·건강을 주제로 한 유익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ill.gunsa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순 60명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교육지원과(☎063-454-260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